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5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7. 8.

발 의 자 : 송옥주 · 이병진 · 정성호
박 정 · 백승아 · 김성환
이수진 · 김재원 · 노종면
한정애 · 용혜인 · 박해철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 관련해 온열손상 및 동상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.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폭염 사망자 수는 493명으로, 같은 기간 태풍과 호우에 의한 인명피해를 합친것의 3.6배임. 군은 2018년부터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제도를 정비하며, 매년 폭염 및 재난 관련 대응지침을 합참과 각 군, 전 국직부대 및 기관에 하달하고 있음.

그러나 해마다 폭염 및 한파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건강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,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,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여금 폭염 · 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 · 시행하도록 함(안 제17조의3 신설).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3(폭염·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) ① 지휘관은 폭염·한파 등으로 인하여 「기상법」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는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군인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,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폭염·한파 등에 대비하여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17조의3(폭염·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) ① 지휘관은 폭염·한파 등으로 인하여 「기상법」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는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군인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,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폭염·한파 등에 대비하여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